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와 김선옥 서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각급 후보,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은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 앞에서 지지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풍(北風) 저지 남풍(南風) 유세단'을 구성하고 선거 막바지 집중 유세를 벌였다.



전주인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와 황일봉 무소속 남구청장 등 서구와 남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은 30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로터리 효사랑 기념탑 앞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의 선거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막판 판세

서·남구, 나주·신안·곡성·장성 초접전

민주당 향수 자극 한표 호소...무소속 지역일꾼론 돌풍 기대

6·2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경합지역의 우열이 가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서구와 남구, 나주·장성·곡성·신안 등에서는 선거 막판까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에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30일 민주당과 각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예초 접전지역 중 순천·광양·강진·화순의 경우 무소속 후보가, 해남·진도 등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약진하며 우세를 굳혀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광주 서구와 남구, 신안·나주·곡성·장성 등에서는 양강 구도를 형성한 민주당과 무소속의 두 후보가 엿치락뒤치락하며 혈전을 이어가고 있다.

◇초접전 지역 막판 판세=광주 서구는 민주당 김선옥 후보의 지지도 상승세가 최

근 추춤하면서 무소속 전주인 후보와 조박빙 양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자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아 승리를 낙관하고 있으나 김 후보 측은 선거 당일에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집중 투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도 민주당 최영호 후보가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의 지원 속에 무소속 황일봉 후보와 초경합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최 후보 측은 여론 지지도 추이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막판 대역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황 후보 측은 승세를 굳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안의 경우 예초 무소속인 박우량 후보의 월등한 리드 속에 출발한 선거판세가 지난 20일께를 기점으로 박 후보와 민주당 장성종 후보의 지지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데 이어 선거 3~4일을 남기고는 두 후보가 엿치락뒤치락하며 혈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은 예초 민주당 우세지역이었으나 조형래 후보의 지지도가 정체를 보이는 사이 무소속 허남석 후보의 막판 약진으로 다시 경합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조 후보는 막판 민주당 바람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자해를

시도했던 허 후보는 경찰이 위치추적기 설치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 이어 퇴원 후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무소속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은 부부군수로서 재선을 노리는 무소속 이청 후보와 민주당 김양수 후보 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 지난 20일께에는 1% 포인트 내에서 초반빙 혈전을 벌이다가 투표일을 3~4일 남기고는 미세하나마 김 후보의 역전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곡성은 예초 민주당 우세지역이었으나 조형래 후보의 지지도가 정체를 보이는 사이 무소속 허남석 후보의 막판 약진으로 다시 경합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조 후보는 막판 민주당 바람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자해를

시도했던 허 후보는 경찰이 위치추적기 설치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 이어 퇴원 후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무소속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들 막판 행보=광주 서구와 남구의 민주당 및 무소속 후보는 막판 세 대결로 우세 잡기를 시도한다. 후보 대부분이 유세보다는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지역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돌기도 했다. 민주당 김선옥·최영호 후보는 광주시장 후보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을 총동원, 민주당 지지세력의 결집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무소속 전주인·황일봉 후보도 경선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무소속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후보들과 힘을 모아 무소속 돌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남 경합지역 후보들도 경합 구도를 깨기 위해 막판 승부수를 띄운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수도권의 북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의 민주당 바람이 절실하며 민주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반면,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을 강조하며 지역 일꾼을 뽑아 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

유시민 지지선언 사퇴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가 30일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사 선거는 명실상부한 야권 단일후보가 된 유 후보와 현역 지사인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심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저는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를 통해 유 후보에게 이명박 정권 심판의 과제를 부탁하고자 한다"며 "유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결심은 외부의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진보정치를 더 크고, 강하게 버리기 위한 고뇌의 결과"라며 "진보 정치 발전과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작은 밑거름으로 쓰이길 바라는 저의 진심이 국민 여러분이 답해달라"고 말했다.

유시민 후보 측은 "심 후보의 어려운 결단이 야권 전체의 승리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야당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홍뉴스

한나라 수도권 '씩씩이' 조짐

민주당 호남권 3곳 우세...인천·충청·경남 최대 격전지

■ 전국 광역단체장 판세

6·2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0일 여야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더 승리하기 위해 불꽃 튀는 막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울·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경북 등 7곳, 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 등 3곳, 자유선진당은 대전, 무소속은 제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충남·충북·경남은 최대 격전지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야는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씩씩이' 조짐이 보이고 있어 민주당에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경기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여당의 주말 '촛불유세'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추격전에 힘을 보태줄지 주목된다.

인천에서도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앞서는 형국이다. 그러나 격차는 10% 안팎에 불과한데다 송 후보가 맹

추격을 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청권 역시 예측불허하다. 특히 세종시 수장으로 한나라당이 위촉된 충남에서는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하지만 적국 투표층에서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가 1위로 올라서기도 하는 등 초접전 양상이다. 30%에 달하는 부동층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가 민주당 이시종 후보를 각각 10% 포인트 정도로 앞서고 있으나 '세종시 심판론'에 대한 충청 표심의 향배가 변수다.

영남권에서는 경남지사 선거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달근 후보와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모두 투입해 '음소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총선, 경남지사 선거 등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김 후보에 대한 동정론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제 주도지사 선거전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혼전이다. 무소속 현명관 후보와 우근민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3% 안팎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초석 목사
신유대집회
 병든자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6월 1일(화) - 3일(목) 저녁 8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광주 예수중심교회 062)262-8291

www.JCCTV

서구청장후보지김선옥후원회 권고

민주당
 DEMOCRATIC PARTY
 서구청장후보자
 김선옥후원회

**참여와 소통의
 생활행정**

김선옥과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안내

- 개인영예로만 후원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500만원 까지입니다.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하여 10%의 환급 받을 수 있고, 초과한 금액은 소독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소액후원을 환영합니다.
-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62-375-1062

농협 302-0228-8458-21
광주은행 169-107-165963
예금주 : 이영규(김선옥후원회)

2 깨끗한 구청장
김선옥

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공표된 것임이요, 법인은 단체, 출판물, 교사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